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빨간 머리 앤



몽고메리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빨간 머리 앤

(캐나다) 몽고메리 지음

허영순 중역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廉福姬

责任校对: 南今月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绿屋的安妮: 朝鲜文 / (加) 蒙哥马利(Montgomery,L.)
著; 许英顺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11

ISBN 978-7-5449-0705-7

I. ①绿… II. ①蒙… ②许… III. ①儿童文学-长篇小说-加拿大-现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711.8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97810号

绿屋的安妮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625 字数: 184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705-7 (民文)

版次: 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4.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 리 말

소설 《빨간 머리 앤》은 캐나다의 녀류작가 몽고메리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지만 《빨간 머리 앤》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옮겨져 널리 읽혀지고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많고 깡마르고 큰 눈을 가진 소녀 앤은 고아원에서 애본리마을의 그린 게이블즈로 옮겨옵니다.

앤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실수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앤은 세상만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예쁜 처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앤은 애본리라는 좁은 곳보다 더 넓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며 꿈도 많고 생각도 많은 아름다운 시절을 맞습니다.

항상 명량한 성격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나갑니다.



주요 등장인물

앤

머리카락이 빨간 소녀. 고아원출신이지만 명랑하고 쾌활하며 재잘거리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의지가 강하여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쳐도 절망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다이에나

앤의 친구로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포도주사건으로 어쩔수없이 앤과 절교를 하지만 오해가 풀림으로써 더욱 더 앤과 좋은 친구로 됩니다.

매슈

그린 게이블즈의 주인으로 늙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누이동생과 함께 지냅니다. 지나칠 정도로 수줍어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앤에게 아주 다정하며 앤의 앞날을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빨간 머리 앤

마리아

매슈의 누이동생으로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역시 결혼을 하지 않고 오빠와 함께 그린 게이블즈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처럼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앤과 함께 지내면서 모성애에 눈을 뜨며 앤에게 사랑을 베풁니다.

린더부인

오십대의 부인으로 부지런하고 인정이 많으며 수다스럽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지만 남을 모해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차차 앤을 좋아하고 앤을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길버트

앤과 같은 반의 남학생으로 앤의 빨간 머리카락을 놀려주었다가 앤의 노여움을 산 뒤 졸업할 때까지 앤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애본리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가 그 자리를 앤에게 넘겨주면서 앤과 친하게 됩니다.



차 례

제1장 도착	1
제2장 매슈의 외출	2
제3장 여자아이	11
제4장 희망	17
제5장 앤의 슬픔	30
제6장 그린 게이불즈	40
제7장 앤의 신상	47
제8장 마리아의 결심	54
제9장 린더부인의 실수	69
제10장 사과	77
제11장 주일학교	86
제12장 친구 다이애너	92
제13장 들놀이 준비	100
제14장 브로치	104





제15장 길버트	113
제16장 포도주사건	128
제17장 앤의 응급조치	139
제18장 음악회	155
제19장 조지판 할머니	161
제20장 “마귀수림”	168
제21장 손님접대	174
제22장 사고	183
제23장 매슈의 선물	193
제24장 거둬되는 실수	206
제25장 매슈의 소망	217
제26장 아이프리 장학금	243
제27장 앤의 선택	258



제 1 장 도착

마지막 열차까지 서서히 브라이트리버역을 떠나자 텅 빈 플랫폼은 허전했습니다. 헌데 플랫폼 맨끝에 놓인 벤치에 한 여자애가 앉아있었습니다.

나이는 열한살쯤 돼보이고 재킷은 무명과 털로 짠 교직 인데 구식이였고 수병모자밑으로는 두가닥으로 땀아내린 유난히 빨간 머리가 어깨에까지 드리워있었습니다. 수수하게 생긴 여자애의 얼어서 빨간 볼은 주근깨투성이였는데 크고 반짝이는 두눈만은 장난기가 다분했습니다.

역의 량옆에 뻗은 길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여자애의 눈에 는 절박한 기다림과 간절한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제 2 장 매슈의 외출

6월의 어느날, 과원에서 분홍색꽃이 다투어 피고 크고작은 나비들이 하늘하늘 춤추고 분주한 벌들이 지칠줄 모르고 즐겁게 노래하고있었습니다. 그날도 린더부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창가에 앉아서 밖을 유심히 살핍니다.

애본리에 살고있는 린더부인은 촌에서 가가호호가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극성스러울만큼 간섭하기를 좋아하기에 아무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린더부인의 감시의 눈을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하천의 동정이며 수림의 바람소리며 학교가는 애들이며 지나가는 행인들이며 모두가 린더부인의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여겨지는것이 있으면 즉시 쫓아가서 꼬치꼬치 캐여몰어 반드시 까닭을 알아내고야맙니다. 린더부인의 이런 습관은 지어 하천 맞은편에 살고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부로서의 솜씨도 대단해서 애본리의 부인들은 누구나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바느질솜씨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주일 학교의 일이며 외국 전도부인회 일까지도 앞장 서서 척척 해내는 활동가입니다.

그러고도 몇시간씩이나 창가에 앉아서 무명이불을 몇채씩 누비는 정력적인 부인입니다. 그것도 집앞에서부터 저쪽 가파른 언덕까지 구불구불 이어진 한길을 쉴새없이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외길목으로 이어진 애본리는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섬의 세인트로렌스만으로 뻗어나간 삼각형의 조그만 반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같은 언덕쪽의 양편에는 물이 차있어서 애본리를 드나드는 길은 린더부인이 한눈에 살필수 있는 이 외길뿐입니다.

그날도 린더부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창가에 앉아서 누비이불을 누비고있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인 토머스 린더는 언덕 저쪽 비탈밭에서 무씨를 뿌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날, 그것도 한창 일할 시간인 오후 3시 반에 매슈 쿠스버트가 유유히 마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린더부인의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매슈가 흰 칼라가 붙은 외출복을 입고 밤색털의 암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것으로 보아 꽤 먼곳에 나들이를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령감이 농사일에 빠져있더니 대체 어디에, 무엇을 하





러 가는걸가?”

린더부인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혼자말을 했습니다. 암만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을 굴려봐도 까닭을 알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마을사람들의 종적에 대해 좀만 머리를 굴리면 대개 알수 있었는데 오늘은 생각할수록 얼떨떨해졌습니다. 매슈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게다가 자기와 상관 없는 일에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매슈가 갑자기 외출을 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궁금증에 사로잡힌 린더부인의 오후는 잔뜩 들뜨고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읍내에 갈 일은 없을테고 결코 누구를 방문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 무씨를 사러 간다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타고 갈 까닭이 없지. 의사를 부르러 가는 사람치고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으니...

이거 답답하기짝이 없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오후 커피를 마시고 그런 게이블즈에 달려가서 알아봐야겠다. 마리아한테 오빠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지.)

그런 게이블즈란 초록색의 캐나다 목조주택의 세모모양의 지붕이라는 뜻으로 남매인 매슈와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게이블즈는 오랜 집인데 사면이 파란 텅굴에 싸여있어 으늑하고 고요하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린더부인은 곧 커피 한잔을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게이블즈는 계곡쪽의 오리나무숲너머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길을 따라가면 40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되지만 긴 숲속의 오솔길이 꽤 지루했습니다.

린더부인은 수레바퀴자국이 깊이 파인 오솔길을 걸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들끼리만 살다니, 매슈와 마리아는 별난 남매야. 나무가 말벗이라도 된단 말인가? 적적해서 어떻게 산담?”

린더부인은 장미꽃이 만개한 오솔길을 걷는 동안 벌써 게이블즈의 뒤뜰에 와있었습니다. 한쪽에 큰 버드나무 고목들이 줄지어서있고 다른쪽에는 삼나무가 서있었습니다. 정원은 깨끗이 정돈되어있었습니다. 나무토막 하나, 돌 한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뜰에 마리아네 부엌이 있었습니다. 린더부인은 부엌문앞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린더부인은 문을 열고 성큼 들어섰습니다. 부엌은 펍 아늑하게 꾸며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갈해서 오히려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창이 있는데 서쪽창으로는 6월의 따가운 해살이 쏟아져들어오고 동쪽창으로는 흰 벚꽃이 만발한 과수원이 내다보였습니다.

마릴라 쿠스버트는 해별을 피해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있었는데 식탁에는 벌써 저녁상이 차려져있었는데 세개의 접시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마리아네는 두식구뿐인데 왜 접시를 새개 차려놓았지? 오, 손님을 접대하려는가봐. 마리아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있는걸 거야. 그래서 매슈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차를 몰았던거구.)

“어서 오세요, 린더부인. 참 상쾌한 점심이죠! 다 무사해요?”

마리아는 뜨개질하던것을 멈추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마리아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의 색깔과 양식만 보아도 융통성이 없는 보수적인 녀인임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성격과 기질은 린더부인과 완전 달랐지만 그녀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 무사해요. 혹시 댁에 무슨 변이라도 생긴게 아니에요? 아까 매슈씨가 나들이 가는걸 보았는데… 난 꽤 걱정을 했답니다. 의사한테라도 가나 하구요.”

린더부인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입술이 야릇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린더부인이 왜 왔는지를 손금보듯 알고있었던거죠.

“아무 일도 없어요. 다만 매슈는 브라이트리버에 갔답니다.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올 거 해서요. 오늘 저녁차로 올 예정이에요.”

마리아의 말에 린더부인은 한동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매슈가 오스트랄리아의 캥가루를 마중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린더부인은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아…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마리아? 룡담 아니죠?”



린더부인은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잖고요.”

마리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린더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것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잠자코 있었다는게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쩔 이럴수가... 판 사람도 아닌 매슈와 마리아가 남자 아이를 양자로 맞이해? 그것도 고아원에서! 이건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군.)

린더부인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린더부인은 마치 자기의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는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보다도 자기는 찬성할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답니다. 지난겨울동안 내내 생각했지요.”

마리아는 숨을 몰아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였던가? 지난 크리스마스전에 알렉산드르 스펜서부인이 오셔서 봄이 오면 호프타운의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올 작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매슈와 나도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는게 어떨가 하고 생각했어요.

매슈도 벌써 예순이니까 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가봐요. 게다가 심장병으로 시달리고있거든요. 도와줄 일군이 필요해요. 하인을 고용할가 궁리도 했지만 요즈음 사람 쓰기가 펍





까다로와졌잖아요? 기껏 데려온다는것이 칠폰이 같은 프랑스 머슴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일을 가르쳐서 좀 일할만하게 되면 무슨 새우통줄 임공장이다, 미국이다 하고 달아나버리기가 일쑤지요. 그래서 여태껏 망설였었는데 결국 매슈의 고집을 못이겨 스펜서부인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린더부인은 여전히 어안이 병병하여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스펜서부인께서 호프타운에 가신다는 기별을 해오셨더군요. 그래서 나이 열살쯤 되는 똑똑한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다달라고 전갈했지요. 그 나이또래면 당장이라도 그럭저럭 쓸모가 있을테고 또 충분히 가르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귀여워해주고 어엿이 공부도 시킬 작정이예요.

아침에 스펜서부인에게서 오늘 저녁 5시 30분 기차로 도착하겠다는 전보가 왔지요. 그래서 매슈가 브라이트리버역까지 마중을 나간것이랍니다.”

이윽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린더부인은 마침내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당신은 엄청난 바보짓을 하고있군요.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있어요. 어떤 아이를 떠맡게 될는지... 생판 모를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다니 딱하시구려.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혈통이며 가문이 어떤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신문에서 읽은것인데 이 섬 서쪽에 사는 어떤 부부도 고아원에서 남자아



이를 데려왔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글썄 한밤중에 집에도 불을 질렀다지 뭐니까. 하마트면 온 가족이 잠자리에서 고스란히 타죽을뻔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리아, 당신이 만약 이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물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물론 나는 절대 반대하겠지만요.”

이런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조금도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개질을 잼싸게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런더부인, 당신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매슈가 어찌나 골똥히 생각하는지 그만 내가 지고말았어요. 하기가 세상일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자기 자식인들 안심하고 낳을 수 있을라고요. 어느 아이고 반드시 착하게 자란다고 할수만은 없잖아요? 게다가 노바스코시아는 이 섬의 바로 이웃이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것과는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와 별로 다를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글썄, 잘되기를 빌겠어요. 다만 그 아이가 혹시 이 집에 불을 놓거나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지 않은탓이라고는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우물이야기는 뉴르런즈윅에서 역시 고아원 아이가 했더군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몰살당했대요. 하긴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다지만...”

런더부인이 채 말을 끝맺기도전에 마리아는 반박이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